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11:1-6)

히브리서 11장 1-6절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 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응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하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눈이 열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되어지게 되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럼 잡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 해도 내 안에 늘 살아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며,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정복하며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치유 사명자 대회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데, 금요일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채미림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메시지, 간증, 특강까지 공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홀리윈드 (Holy Wind)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손녀를 유치원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던 날,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집 밖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집들 중에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있는 집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학교에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미 각인된 문화에 손주들에게 귀신 문화를 이야기를 해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귀신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이 할로윈 데이에 놀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홀리윈드 행사를 준비해준 장유진 집사와 다른 집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참석한 인원 중 반 이상이 다민족임에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맞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재 장로님 세 분과 제가 함께 3시대의 메시지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2부예배 시간에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주 부터 시작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뜰은 성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 세 뜰입니다. 또한 3시대의 방향과 사상은 선교지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또한 3시대의 시스템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도 이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선교지에 Full-time 선교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사모임이 학교 사진을 보내와 이 학교에서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훈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렘넌트 운동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미를 위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과 함께 교회 내부의 시스템을 위한 단어가 3시대입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인 이유는 성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의 메시지이며, 그것을 요약한 것이 3시대입니다. 큰 방햐이자 근본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선교 현장에도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은 교회의 배경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금토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굉장히 집중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심을 포럼드렸습니다.

1. 바라는 것들의 실상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버지 아담이 말하는 이것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아벨은 믿었으나 가인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아벨은 약속의 피를 가인은 곡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피를 들고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 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

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도 이렇게 되었고, 우리도 1절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4절에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의 삶을 언약의 믿음으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약속의 피입니다. 아벨이 잡았던, 에녹이 잡았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계속 언급되는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발견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세상을 정복하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 완성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음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출발도 안되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시며, 우리 운명이 바뀌고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이며, 나아가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길이니 하나님의 상도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믿음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던 것들이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앞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냥 걷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1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많은 선진 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그랬으며 수많은 선진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뿐 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것 뿐 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위해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면 지쳐 못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내 안에 들어와 응답이 되어야 하며 이 작업이 돼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언약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한나에게 어느 날 이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즉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걱정 없이 슬픈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승리와 정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 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불안이 올라와도 저절로 꺾이게 되는 것.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린 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계속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군데군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받은 답의 특징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미 승리를 갖고, 답을 갖고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 가진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집중하고 예배를 예사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루 한번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날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나 처럼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답이 오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이 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고, 백부장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답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가자 내가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해도, 백부장에겐 지금 여기서도 나을 수 있으니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만큼의 믿음 가진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 받겠다는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하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안한다면 하루 하루 쌓여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동하면 됩니다. 그럼 그 날은 오게 됩니다. 작품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